

최인수 개인전

일정: 2013.9.5(목) - 10.11(금)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최인수 개인전 폴더)



갤러리 시몬에서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조각가 최인수 교수(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의 개인전을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최인수 작가의 작품은 작품 자체를 넘어 그를 감싸고 도는 공기, 공간 사이의 조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작품화하는 작가 최인수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전시장에 전시되는 <장소가 되다, becoming a place> 작품은 이번 개인전을 통해 처음 소개되는 최인수 작가의 신작으로 작품을 이루는 세 개의 판들은 각각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 '그것'의 '그것들'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분리된 세 개가 아니다. 상이한 각도와 기울기를 지닌 세 개는 조금도 평화를 깨지 않으면서 하나가 된다. 그것은 분명 하나 안에서 서로에게 원인이고 결과이며, 서론이자 본론이며, 앞과 뒤로서 변증적으로 존재한다. 상이한 분리들의 반정립으로 하나의 오브제를 정립시키는 작가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기꺼이 스스로를 개방하고 외부를 포용하며, 충실히 서로에게 다가서고 기대고 기여한다.

gallery **simon**

또한 작가 최인수에게 흙은 작품의 질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흙은 소조작업을 위한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재료이다. 그러나 형태를 자유롭게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을 넘어 작가는 재료가 가진 특성을 작업의 의미와 연관시키고 이것을 작품의 본성으로 삼는다. 작가에게 조형행위는 그 자체가 명상의 연장이기도 하다. 작가 최인수는 끊임없이 완성을 회의하고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면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형 행위 전반의 과정들을 성찰한다.

작가 최인수의 세계는 어떤 해방도 약속하지 않는다. 매혹적인 저항의 담론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해방이 아닌 포용의 힘으로, 저항이 아닌 세계와의 절제된 관계 맺기로 다가서는 작가 최인수의 작품세계를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